

Korean A: literature – Standard level – Paper 1
Coréen A : littérature – Niveau moyen – Épreuve 1
Coreano A: literatura – Nivel medio – Prueba 1

Friday 8 May 2015 (afternoon)
Vendredi 8 mai 2015 (après-midi)
Viernes 8 de mayo de 2015 (tarde)

1 hour 30 minutes / 1 heure 30 minutes / 1 hora 30 minutos

Instructions to candidates

- Do not open this examination paper until instructed to do so.
- Write a guided literary analysis on one passage only. In your answer you must address both of the guiding questions provided.
- The maximum mark for this examination paper is **[20 marks]**.

Instructions destinées aux candidats

- N'ouvrez pas cette épreuve avant d'y être autorisé(e).
- Rédigez une analyse littéraire dirigée d'un seul des passages. Les deux questions d'orientation fournies doivent être traitées dans votre réponse.
- Le nombre maximum de points pour cette épreuve d'examen est de **[20 points]**.

Instrucciones para los alumnos

- No abra esta prueba hasta que se lo autoricen.
- Escriba un análisis literario guiado sobre un solo pasaje. Debe abordar las dos preguntas de orientación en su respuesta.
- La puntuación máxima para esta prueba de examen es **[20 puntos]**.

하나의 제시문을 골라 문학적으로 분석하시오. 분석에는 제시된 질문의 내용이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보다 현실적인 것은 아내 쪽이었다. 그가 아내에게 그 계획을 이야기 했을 때 아내는 당연히 어이가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아내의 뱃속에서는 칠개월 된 태아가 숨쉬고 있었다. 임신 후 12킬로나 몸이 불어버린 아내는 보는 사람마저 숨을 헐떡거리게 할 만큼 둔한 모습이었다. 윤곽이 뭉개져버린 얼굴이었음에도 그러나 그 표정만큼은 어찌나 섬세하던지. 그때 아내가 보였던 섬세한 표정의 의미는 그에 대한 혐오감의 표현이 아니었던가 싶다. 아내는 그에게 실망한 나머지 아주 오랜 시간 동안을 묵비권으로 일관하던지, 나중에 극단적인 감정상태가 되었을 때는 아예 도발적인 모습으로 돌변해버리기까지 했다.

“좋아, 해봐. 어디 해보라구!”

10 그 말투는 마치 “어디 두고 보자”는 말이나 조금도 다름없게 여겨지는 것이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는 아내가 묵비권을 지키고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르게 어디 한번 해보라는 말에 불쑥 자신감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었다. 두고 보자는 사람 안 무섭다더니, 사실은 전혀 그 반대였기 때문일까. 그의 어눌한 표정 앞에서 아내는 다시 한번 악을 썼었다.

15 “출세할 자신이 없으면 가정을 지킬 책임감은 있어야 하는 거 아냐? 무책임한데다가 용기도 없어. 도대체 뭘 믿고 살라는 거지? 최소한 동거인으로서의 윤리는 있어야 하는 거 아냐?”

최소한 동거인으로서의 윤리…… 아내의 그 말은 너무도 손쉽게 그의 손에 백기를 쥐어주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그는 아내가 분노하고 있는 이유를 그가 가장으로서 너무 경박하게 행동한다는 데에 있는 줄로만 알고 있었다. 하긴 특별한 비전이 있는 것도 아닌 널리고 널린 오퍼상 하나를, 그것도 친구밀으로 들어가는 주제에 독립이랍시고 떠들어대는 것이 한심하게 보려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것이란 걸 그 역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아내는 말했던 것이다. 최소한 동거인으로서의 윤리. 그 말을 통해 아내는 자신이 결코 그에게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혔던 것이다. 하긴 그랬다. 결혼 2년간, 그가 아내에게 가장으로서의 든든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이 몇차례나 되었을까.

20 분명히 그랬다. 네가 가장으로서 한 게 뭐 있냐. 그런 식의 직설적인 물음보다도 “최소한 동거인으로서의 윤리”라고 간접적으로 자신의 불만을 표현해낸 아내의 화술은 그를 참담할 정도로 왜소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었다. 그는 처음엔 어이가 없었고 나중엔 화가 났고 또 억울해졌다. 결혼 이후 그는 적어도 최선을 다하기는 했다. 자의로 그러했던 강요에 의해 그러했던 어쨌든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가며 최선을 다한 것만큼은 사실이었다. 그런데도 그는 가장 노릇조차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35 결국 그는 백기를 들고 포기를 선언해버렸다. 그에게 있어 가정이란 울타리란 것이 최후의 보루인 것인지, 아니면 시종일관의 굴레였던지는 알 수 없다. 어쨌든 그는 전자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인간으로, 또는 남자로 마지막 허세를 부릴 수 있는 곳이 오직 그곳밖에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라도 가정은 지켜져야 했다. 두고 보자고 두 눈에 쌍심지를 켜는 여자 앞에서 무모한 도전을 할 용기 같은 건 없었다.

- 40 그리고 그는 이제 더 이상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작정을 했다. 삶은 결코 지고한 희망 따위가 아니고 무수한 타협의 연속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이다. 그랬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프로메테우스의 바윗덩어리를 등쪽에 올려맨 채 끝없는 행군을 계속해야만 하는 고행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받아들였고, 아니, 그렇게 할 수조차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는 그저 살아갈 뿐이었다. 가급적 무사히 말이다.

김인숙 “양수리 가는 길” <칼날과 사랑> (1993)

- (a) 이 글을 읽고 주인공 “그”가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그와 아내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 (b) 이 글에서 은유적으로 쓰인 표현들을 찾아 그 뜻이 무엇인지 문맥에 맞게 설명하시오.

2.

외딴 마을의 빈집이 되고 싶다

나는 문득
외딴 마을의
빈집이 되고 싶다

누군가 이사오길 기다리며
5 오랫동안 향기를 묵혀둔
쓸쓸하지만 즐거운 빈집

깔끔하고 단정해도
까다롭지 않아 넉넉하고
하늘과 별이 잘 보이는
10 한 채의 빈집

어느 날
문을 열고 들어올 주인이
“음, 마음에 드는데……”
하고 나직이 속삭이며 미소지어 줄
15 깨끗하고 아름다운 빈집이 되고 싶다

이해인 <외딴 마을의 빈집이 되고 싶다> (1999)

(a) 이 시의 문체와 운율이 나레이터 “나”가 되고 싶어하는 집의 이미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설명하십시오.

(b) 이 시의 “빈집”의 특성은 무엇이며 이것이 이상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